낙엽을 밟으며

이른 아침 강을 따라 걷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나무 이파리들이 봄꽃들보다 화사합니다. 지나간 시간들처럼, 잎들은 색색의 빛깔을 지닌채 강변 길섶에 수북수북 쌓입니다.

당당히 살아야 할 시간이 끝났으므로 지상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와 자신의 몸을 계절의 한기와 궁핍 속에 기꺼이 맡기는 그 소멸의 수수로움이라니요.

옛 선사들은 이즈음의 시간들을 체로금풍(體露金風)의 시절이라 불렀습니다. 잎이 다 진 허허로운 가지 위에 찬 이슬이 내리고, 그때 불어오는 금빛의 바람...

참 신비한 일이지요. 잎이 진 계절에 불어오는 바람은 북풍한설의 바람입니다. 견디기 힘들고 고통에 가득찬 시간들 속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금빛 바람이라 부르다니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옛 선사들의 지혜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북풍한설을 잘 견뎌낸 봄의 나무들만이 자신의 살가죽을 자랑스레 찢으며 연두빛 이파리와 눈부신 색색의 꽃들을 허공 속에 당당히 드리울 수 있으니까요. 혹독한 고난의 시절을 인내하지 못한 존재들은 생의 진보를 꿈꿀 수 없습니다. 견디기 힘든 아픔의 시간들을 이겨낸 존재들만이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있지요.

고난을 이겨낸 나무와 꽃들

수북수북 쌓인 낙엽을 밟고 걷노라면 발밑 어디에선가 일찌기 경험한 적이 없는 친밀한 생의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낮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한 발 한 발 걷노라면 지금껏 우리 곁에 있었던 부끄럽고 허름하기 이를데 없는 시간들에 대해서조차 마음이 훈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시간들의 흔적이야말로 우리가 겨울을 맞고 눈보라를 견디며 다시 새 봄을 꿈꾸는 중요한 자산이 아닐런지요.

지난 한해의 시간들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울산시의 한 6급 공무원은 매일매일 거둬드린 뇌물이 얼마인지 스스로 알 수 없다 얘기했고 강남의 아파트 가격들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돈이 되는 상

가와 아파트의 분양에는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꾼들로 범벅이 되고, 그 자리에서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가 되었지요. 로또라는 이름의 복권 가게들이 책가게보다 더 많이 거리에 들어서고 한 경찰관이 로또복권에 일등 당첨된 후 식구들과 함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를 부러워 한 사람들이 복권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그 와중에 핵폐기장 건립을 저지하기 위해 부안에서 서울까지 삼보일배로 건너간 수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지난 일 년

붐비는 주말 고속도로의 갓길을 씽씽 달려나가는 이웃들의 모습도 여전했고, 방글라데시나 필리핀에서 건너온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는 어디론가 떠난 기업주들의 소식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는 매일 정치자금 폭로전이 벌어지고 해방이전에 소련이나 중국으로 건너간 한국사람들은 재외동포가 아니라는 이상한 법률도 만들어졌습니다. TV에서는 임금님의 식사 메뉴를 다루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고 몸매가 아름다운 몇몇 탤런트들이 누드 모델이 되어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으며 메이저리거인 김병현이 미국관중들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세워 혼쭐이 나기도 했습니다. 불경기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금강산 관광을 지휘하던 재벌 총수가 투신자살을 했으며, 북한에 돈을 퍼주지 말자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이런 생각들로 뒤범벅이 된 내 앞에 강은 천천히 흐릅니다. 강물 속에는 옷을 다 벗은 산비탈의 나무들이 한줄로 서 있습니다.

자연에게 배우는 사람의 모습

나란히 서서 어디론가 떠나가는 그들의 벗은 마음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왠지 부끄럽기만 합니다. 정말 근사한 일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것이 지난 한 해의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랫 동안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어 왔습니다. 오랜 독재와 억압의 그늘 속에서 우리는 공동체의 역사와 삶의 진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기꺼이 싸운 아름다운 삶의 이력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선하고 고귀한 시간들의 궤적은 전 세계의 역사 속에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한 해, 한 해의 시간들은 두렵고 고통스러웠지만 행복했습니다. 몇 푼의 프리미엄을 위해서, 허망하기 이를 데 없는 복권 당첨을 위해서, 자랑스러웠던 지난 시간들의 꿈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강물은 나무 그림자들과 함께 천천히 길을 떠납니다.

나는 나뭇잎을 밟으며 강기슭을 따라 걷습니다.

봄이 오면 이 강기슭은 새로운 초록의 이파리들을 지닌 나무들의 꿈으로 설레이게 되겠지요. 무수한 봄꽃들이 지나간 고통의 시간들을 자랑으로 여기며 펑펑 피어나겠지요. 소멸의 시간을 밟아가며 꾸는 새로운 시간들의 꿈. 가난하지만 아름답게 살아온 우리 이웃 모두에게 지난 한 해, 참 보기 좋았노라 여기 적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수북히 흰눈 쌓인 겨울 숲의 모습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곽재구
1954년 전남 광주 출생.
1981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사평역에서」가 당선. 창작동화집「아기 참새 찌구」, 산문집으로 「내가 사랑한 사람 내가 사랑한 세상」, 「곽재구의 포구기행」 「곽재구의 예술기행」 등이 있으며 현재 순천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

열다섯번째

인권 콘서트

정태춘 · 박은옥 전인권 김종서 N.EX.T 이상은 꽃다지
박원순 최광기

일시. 2003년 12월 18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장충체육관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문의. 02-763-2606
www.minkahyup.org

주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한겨레신문사

예매처. INTERPARK (1544-1588)
www.interpark.com

열다섯번째 인권콘서트

"다름이 있어 아름다운 세상"

인권콘서트 열다섯번째, 14년 세월 인권을 노래해 왔지만 여전히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고
나누어야 할 사연으로 인해 우리는 '진정한 인권이란 무엇인가?' 곱씹어 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며 열정을 바쳤던 그 첫마음을 되새겨 봅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 세상을 돌아보려 합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사연을 다시 기억하려 합니다.
그리고 주목받지 못하는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 양심적병역거부자, 양심수, 성적소수자, 장애인...
바로 우리사회가 내친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누구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 다름이 있어 아름다운 세상.
'열다섯번째 인권콘서트'가 그리는 세상입니다.

문의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02-763-2606)